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교육 경험 및 필요성 인식과 여가태도, 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

이문진¹

¹서울교육대학교

Experiences and Cognition about Leisure Education, Leisure Attitude, Leisure Constraints and Negotiation of Educational University Students

Lee, Munjin¹

¹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and cognition about leisure education, leisure attitude, leisure constraints and negotiation of educational university students. 4 educational universities were selected, and a total of 320 data was collected from 80 students in 4th grade at each university. 8 data was excepted because of missing answers, 312 data was used for the final analysis. 6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additional inform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 The leisure education experiences of educational university students were very low, and more than half recognize the necessity of leisure education. Emotional attitude was the highest factor and cognitive attitude was the lowest factor in leisure attitude of educational university students. Economic constraints were high and facility constraints were relatively low in leisure constraints. Intensity control strategy was the highest and efforts to acquire skill strategy was the lowest factor in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Key words : educational university students, leisure education, leisure experience, leisure cognition, leisure attitude, leisure constraints,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주요어 : 교육대학교 재학생, 여가교육, 여가경험, 여가인식, 여가태도, 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B5A02017038).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Mun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choJoongang-ro 96, Seocho-gu, Seoul, South Korea
Tel: [REDACTED] E-mail: sky99722@hotmail.com

Received: February, 8, 2019 Revised: February, 27, 2019 Accepted: March, 15, 2019

I. 서론

현대사회는 노동생산성 중심의 가치관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현대의 여가는 평생에 걸쳐 학습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영역이 되었고(지현진, 2010), 또한 여가의 건전한 활용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함과 동시에 문화적 수준의 기준이 되고 있다(하지연, 2006). 여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여 얼마나 더 즐겁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의 행복을 위한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여가중심사회에서 여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별적 접근방식이 아닌 생애단계별 여가교육의 체제마련과 생애 전반에 걸친 일관성 있는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제도화된 공교육을 통해 평생학습으로서의 여가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김미향, 2006; 김지영, 이철원, 조방현, 2006; 원형중, 이승민, 박수정, 2007)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여가관련 내용이 초등 중등학교 체육교과와 사회교과에 포함되었다. 이후 초, 중, 고 교육과정에서 여가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기술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 특히 체육교육과정은 ‘운동기능중심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가치중심 교육과정’으로 기본 철학의 전환이 이루어졌고(유정애, 2009),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라는 5가지의 생활가치(Life-Skill)를 기반으로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과 함께 여가활동이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영역으로 포함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이와 함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인재들이 가져야할 핵심 역량으로 창의·인성을 강조하면서 체육과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한만석, 김준성, 양도업, 2014).

하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고, 수업의 효과는 교사의 수업기술에 달려

있다(변영계, 1993). 아무리 좋은 체육교육과정을 개발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면, 개발된 교육과정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여가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여가활동과 관련된 내용요소를 교육과정에 포함했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나(조한범, 2011),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대부분 여가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부족하며(김매이, 2014), 새로운 교과과정 체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송재호, 김재운, 2013; 신규리, 박수정, 김용석, 2009).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여가교육은 실제적 교육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한만석, 김매이, 2013).

이처럼 체육과 교육과정에 여가활동 영역이 포함되었으나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현장교사나 예비교사를 위한 여가활동 및 여가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예비교사교육 단계에서 여가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송재호, 김재운(2013)의 연구에서는 신설된 여가활동 단원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연수나 교육 경험은 없다고 제시하였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양성단계의 교육내용 중 여가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신규리 등, 2010). 신규리 등(2009)은 현장교사들이 여가활동 관련 재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가활동 지도를 위한 정부 및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여가이론 전문교과목 개설이나 현장적용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여가교육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가교육의 질이 현장교사의 여가에 대한 이해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때, 학교현장에서 여가활동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교사 양성단계의 여가교육이 매

우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공식적 교육의 세계로 입문하는 첫 단계인 초등교육은 그 역할의 무게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중등학교와 달리 대부분의 수업이 담임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등학교에 비해 교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받는 특징이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한 여가활동은 전 생애를 걸쳐 발현 된다는 연구결과(Iso-Ahola, 1980; Sacker & Cable, 2005; Scott & Willits, 1998)에서도 나타나듯, 여가에 대한 조기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며, 초등교육차원에서의 여가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조한범, 2011). 또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들, 특히 교육대학교 재학생의 여가에 대한 인식과 여가교육자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일은 초등교육과정에서 여가활동 영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 전체의 근간이며, 초등교사 양성의 산실인 전국 교육대학의 커리큘럼에는 아직까지 여가를 주된 내용으로 한 교육과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일부 교육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에서만 여가와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과과정이라기보다는 여가학의 이론적 측면에 편향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여가교육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과교육의 교육과정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대상을 교육대학교 재학생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활용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가인식 제고와 여가의 가치와 필요성 등 여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여가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 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시급히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교육 경험, 여가교육의 필요성 인식, 여가관련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제약을 파악하고 여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여가제약협상전략을 파악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교육 경험과 여가교육 필요성의 인식, 여가태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그들이 인지하는 여가제약과 여가제약극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여가제약협상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교육에 대한 인식과 여가실태를 파악하고, 교육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교육 경험과 여가교육 필요성 인식, 여가태도와 여가제약 및 협상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교육대학교 4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4개 교육대학교를 임의선정하고, 각 교육대학교 별 4학년 재학생 80명 씩 총 320명을 할당표집법으로 표집하였다.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교육대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집된 총 320부 중 답변이 누락된 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1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기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여가교육 경험과 필요성 인식,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교대 4학년 재학생 6명을 체육교육과 소속 시간강사 선생님들에게 추천받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학생별로 40분가량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은 설문 결과를 기초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반구조화 된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조사의 내용을 보충하고, 추후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관련된 의견을 수합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성별	남학생	98	31.4
	여학생	224	68.6
	K교대	79	25.3
학교	S교대	80	25.7
	CJ교대	75	24.0
	CC교대	78	25.0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설문지로 인구통계학적변인, 여가교육경험, 여가태도, 여가교육필요성인식, 여가계약, 여가계약협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여가교육 경험

여가교육경험은 본 연구를 위해 여가교육 경험과 여가 활동 영역의 교육과정 내 존재 사실을 아는지,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참여의사가 있는지 묻는 총 5개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답변의 형태는 ‘있다’, ‘없다’로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초·중·고 과정 중 수업을 통해 여가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교대 입학 이후 강의를 통해 여가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수업이나 강의 외에 여가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여가 활동 영역이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여가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수강 할 의사가 있는가?’.

2) 여가교육 필요성 인식

여가교육 필요성 인식은 한만석 등(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박효진(2012)의 중학생의 여가교육 필요성 인식 관련 5개 문항 중 여가관련

교육경험과 중복되는 ‘수업시간 중 여가활동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문항을 제외하고 4개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했다. 수정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여가교육을 권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가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가교육기회가 보다 많아 졌으면 좋겠다’, ‘여가교육은 나의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답변의 형태는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여가태도

여가태도는 Ragheb & Beard(1982)가 개발하고 이문진, 김동진, 김미량(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용으로 수정된 여가태도척도(Leisure Attitude Scale : L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 의지의 4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답변의 형태는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리커트 5점

표 2. 여가태도 요인분석

문항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의지
9	.857	.198	.119	.085
8	.831	.262	.107	.136
10	.761	.316	.147	.219
12	.529	.171	.263	-.394
11	.484	.371	.318	.321
2	.085	.839	.081	.146
5	.218	.763	-.070	-.071
1	.304	.664	.312	.198
6	.359	.629	.375	.290
3	.335	.602	.151	.063
4	.323	.491	.234	.349
7	.273	.474	.358	.176
15	.138	.106	.764	.078
14	.245	.193	.696	-.031
13	.014	.007	.655	.076
17	.040	.061	.009	.748
16	.369	.256	.305	.507
18	.365	.288	.251	.428
합계	3.742	3.526	2.544	1.805
%분산	20.786	19.590	14.135	10.026
%누적	20.786	40.376	54.511	64.537
Cronbach's α	.878	.844	.864	.840

Bartlett's Sphere formation test($\chi^2=3049.742$, $df=153$, $p<.000$)
Kaiser-Meyer-Olkin의 MSA=.929

척도를 사용하였다.

4) 여가제약

여가제약은 Hubbard & Mannell(2001)에 의해 개발되고 이문진, 황선환(2012)의 연구에서 활용한 여가제약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적 제약, 동반자 제약, 경제적 제약, 타인의식 제약, 여건 제약, 시설 제약의 6요인 26문항 중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2문항을 삭제하고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답변의 형태는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 여가제약 요인분석

문항	개인적	동반자	경제적	타인의식	여건	시설
13	.813	.103	.109	.100	-.139	-.028
14	.794	.044	.061	.167	.157	.281
17	.711	.288	.042	-.084	.045	.201
12	.705	.227	.254	.303	-.083	-.091
18	.702	.177	-.106	-.029	.165	.347
15	.682	.380	.010	-.001	.267	.143
25	.143	.812	.088	.030	.164	.120
24	.297	.794	.084	.049	.099	.229
23	.180	.774	.087	.195	.185	.096
21	.272	.671	.005	.157	.120	.244
2	.157	-.068	.838	-.075	.093	.063
1	.058	.240	.736	.174	.023	.020
4	.078	.073	.702	.404	.062	.075
5	-.060	-.056	.695	.419	.118	-.053
11	.175	.225	.215	.821	-.064	.091
9	.002	.073	.321	.725	.094	.251
10	.247	.114	.229	.680	.316	.266
8	.113	.100	.107	-.034	.798	.208
7	.071	.207	.093	.023	.796	.043
6	-.010	.159	.067	.214	.756	-.012
27	.216	.175	-.022	.181	.098	.756
26	.286	.374	-.013	.226	.088	.695
3	.083	.249	.362	.092	.084	.596
합계	3.928	3.264	2.838	2.561	2.399	2.116
%분산	15.108	12.555	10.914	9.851	9.226	8.138
%누적	15.108	27.663	38.577	48.428	57.654	65.792
Cronbach's α	.866	.847	.809	.787	.765	.724

Bartlett's Sphere formation test($\chi^2=4971.939$, $df=325$, $p<.000$)
Kaiser-Meyer-Olkin의 MSA=.813

5) 여가제약협상

여가제약협상을 측정하기 위해 이문진, 황선

환(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여가제약 협상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여가활동비 마련 및 시간관리 노력,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의 6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변의 형태는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4. 여가제약협상 요인분석

문항	동반자	활동비	강도조절	기술습득	열망변화	에너지충전
2	.754	.272	.100	.272	.047	.072
3	.751	.212	.101	.136	.051	.175
5	.718	.062	.088	-.091	.123	.152
4	.705	.367	.142	.329	-.052	.015
1	.688	.255	.213	-.029	.055	-.053
14	.095	.783	.109	-.033	.024	.120
15	.194	.758	.105	.029	.060	.025
11	.298	.728	.036	.297	.118	.021
13	.353	.644	.095	.116	.166	.044
12	.336	.620	.123	.335	.090	.070
16	.345	.466	.103	.090	.213	.342
6	.058	.062	.824	.039	.123	.129
10	-.009	.142	.795	.039	.137	.132
9	.264	.154	.656	.037	-.105	-.273
7	.127	-.048	.556	.068	.225	.111
8	.263	.178	.493	-.023	-.031	-.349
21	.097	-.046	-.011	.821	.178	.040
20	.079	.368	.087	.629	-.191	.099
22	.175	.391	.154	.497	-.258	.203
17	.022	.107	.324	-.165	.682	.118
18	.109	.267	-.060	.238	.636	-.377
19	.254	.041	.376	.005	.571	.219
23	.189	.153	.113	.146	-.025	.693
24	.311	.355	-.057	.114	.177	.537
합계	3.832	3.744	2.744	1.878	1.585	1.546
%분산	15.966	15.600	11.433	7.824	6.604	6.443
%누적	15.966	31.566	42.999	50.823	57.427	63.871
Cronbach's α	.864	.849	.809	.787	.776	.750

Bartlett's Sphere formation test($\chi^2=3418.098$, $df=276$, $p<.000$)
Kaiser-Meyer-Olkin의 MSA=.887

3. 자료의 처리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누락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8부를 제외하고 총

312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교육 경험 및 필요성 인식, 여가태도, 여가제약 및 여가제약협상을 파악하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심화하여 검토하기 위해 S교대 4학년 재학생 6명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별 면담은 약 40분씩 실시하였으며, 면담과정은 동의 후 녹취하였다. 녹취한 자료는 전사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의미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결과에 제시했다.

Ⅲ. 결과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교육 경험 및 필요성 인식, 여가태도, 여가제약 및 협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가교육 경험

여가교육 경험여부와 관련된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초·중·고 과정 중 수업을 통해 여가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6.67%에 그쳤으며, ‘교육대학교 입학

표 5. 여가교육경험

질문내용	구분	인원 (명)	백분율 (%)
초·중·고 과정 중 수업을 통해 여가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있다	52	16.67
	없다	260	83.33
교대 입학 이후 강의를 통해 여가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있다	33	10.58
	없다	279	89.42
수업이나 강의 외에 여가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있다	5	1.60
	없다	307	98.40
여가 활동 영역이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279	89.74
	몰랐다	33	10.26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여가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수강할 의사가 있는가?	있다	283	90.71
	없다	29	9.29

이후 강의를 통해 여가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는 응답도 10.58%에 지나지 않았다. ‘수업이나 강의 외에 여가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는 학생은 2%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여가 활동 영역이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것은 89.74%의 재학생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여가 관련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수강하겠다는 응답도 90.71%에 달했다.

2. 여가교육 필요성 인식

여가교육 필요성 인식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가교육을 권장해야 한다’와 ‘여가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교육대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교육 필요성 인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교육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65%에 달했으며, 여가교육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는 재학생의 비율이 79% 정도로 높았다.

표 6. 여가교육 필요성 인식

여가교육의 필요성	구분	인원(명)	백분율(%)
여가교육을 권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79	25.32
	그렇다	115	36.86
	보통이다	99	31.73
	그렇지 않다	16	5.13
	전혀 그렇지 않다	3	0.96
여가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92	29.49
	그렇다	108	34.62
	보통이다	89	28.53
	그렇지 않다	20	6.41
	전혀 그렇지 않다	3	0.96
여가교육 기회가 보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매우 그렇다	102	32.69
	그렇다	104	33.33
	보통이다	91	29.17
	그렇지 않다	11	3.53
	전혀 그렇지 않다	4	1.28
여가교육은 나의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그렇다	108	34.62
	그렇다	140	44.87
	보통이다	41	13.14
	그렇지 않다	17	5.45
	전혀 그렇지 않다	6	1.92

3. 여가태도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태도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인 여가태도가 5점 만점에 2.57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태도가 가장 높은 2.79, 인지적 태도가 가장 낮은 2.28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 여가태도

전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의지
2.57	2.28	2.79	2.62	2.60

4. 여가제약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제약은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인 여가제약의 수준이 5점 만점에 3.0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약(3.70)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식제약(3.60)도 다른 제약요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제약(2.32)과 시설 제약(2.19)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여가제약

전체	동반자	개인적	경제	타인의식	여건	시설
3.09	3.32	2.32	3.70	3.60	3.41	2.19

5. 여가제약협상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제약협상은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인 여가제약협상의 수준은 5점 만점에 2.58로 나타났으며, 강도조절(2.97)이 가장 높은 수준의 협상전략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습득 노력(2.32)은 가장 낮은 협상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여가제약협상

전체	동반자 탐색	활동비 마련	강도 조절	기술 습득	에너지 충전	열망 변화
2.58	2.41	2.5	2.97	2.32	2.56	2.7

6. 인터뷰 결과

6명(a, b, c, d, e, f로 표기)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가에 대해 대부분 소극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적극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여가는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a)
- 여가는 기분 전환하는 시간이에요(b)
- 여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노는 거예요(c)
- 일이나 공부를 위한 재충전의시간이에요(d)
- 여가는 음...나를 찾는 나를 위한 시간?(e)

대부분 여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가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 여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b)
- 여가에 대해 배워보고 싶어요(d)
- 학교 다닐 때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e)
-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f)

여가를 소극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은 여가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거나 거부감이 존재한다.

- 여가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잘 놀면 좋지만 이걸 배우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b)
- 노는 것도 배워야 하나요? 저는 잘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하하(c)

대부분 초중고 재학시절 여가와 관련된 내용

을 배워본 경험이 없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을 제시했다.

여가라는 걸 체육시간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배워본 기억이 없어요(a)
체육시간에요? 배운 적 없죠. 체육에 여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b)
학교에서 여가를 배울 시간이 어디 있나요. 입시위주고……(d)

교대에 입학한 이후 여가에 관련된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으며, 교육과정 관련 강의를 통해 여가활동영역이 교육과정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제시했다.

교대 강의는 아시 자나요. 시간표가 나온 대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여가관련 수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b)
교대 들어와서도 딱 여가라고 해서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d)
교육과정 수업에서 다른 조원이 발표하는 걸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정확히 기억은 잘 안나요(f)

대부분 여가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된다면 수강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정규교과과정 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 참여해야 한다면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가관련 강의를 있으면 좋겠어요(a)
여가교육 저는 현장에서 해보고 싶어요. 재미있을 것 같고, 애들도 좋아 할 것 같고……(e)
별도로 시간을 내서 다른 활동을 듣긴 쉽지 않죠. 아무래도 임고도 있고, 과제도 많고……(f)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교육 경험과 여가교육 필요성 인식, 여가태도, 여가계약 및 협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 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 교육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초·중·고교 시절 여가교육 경험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공교육에서 여가라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도입 하고 강조하기 시작한 이후의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가교육의 경험이 17%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현재 공교육 속에서 여가교육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심층면접에서도 학창시절에 여가라는 부분에 대해 학교에서 접해본 적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7차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중 여가영역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 모르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다고 밝힌 이은실(2012)의 연구나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여가의 일부분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 여가교육 개념에 관한 인식의 부재, 수업환경 미비 등 여가교육 수업 구현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다고 밝힌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강경진, 2007; 신규리 등, 2009; 송재호, 김재운, 2013). 한만석, 김매이(2013)의 주장처럼 교육 현장에서의 여가교육은 실제적 교육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중 여가관련 교육 경험에 대해서도 90% 정도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어 초등학교 예비교사교육단계에서 여가교육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예비교사교육단계에서 여가 관련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현장 교사가 되어서도 여가관련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이에 신규리 등(2009)은 현장 교사의 여가활동 관련 재교육 요구와 예비교사

교육 단계에서 여가이론 전문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신규리 등(2010)은 중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양성단계의 교육 내용 중 여가와 관련 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초등교육만의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수업이나 강의 외에 여가관련 교육경험은 전무한 수준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김지영 등, 2006; 지현진, 2010)한 반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 교육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여가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조한범, 2011; 지현진, 2010; 황선환, 김매이, 박수정, 2017)들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단순한 제안의 수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적용 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여가 활동 영역이 교육과정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층면담 결과 교육과정 관련 조사활동을 포함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정규 교과 내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내용 인지 수준이 매우 높고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내에 여가관련 내용이 포함 된다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육대학교 재학생들 또한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개설 된다면 수강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층면담에서는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되지 않을 경우 임용고시 등의 부담으로 추가로 수강할 여력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 교육대학교 내에서 여가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 포함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가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대학교

재학생의 60% 이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여가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교육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 여가교육에 대해 80% 정도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여가에 대한 중요성이나 여가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남량균, 임수원, 2005; 이상호, 김동기, 2010). 반면에 심층면담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여가교육에 대한 막연한 인식으로 인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가’란 ‘쉬는 것’, ‘노는 것’, ‘기분전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고, ‘교육’은 배우는 것 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노는 것도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었다. 이는 한만석 등(2014)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여가를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제시한 결과와 일치한다. ‘여가’의 가치에 대한 재개념화와 여가교육의 가치에 대한 계몽적 여가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의 여가태도의 경우 정서적 태도가 가장 높고, 인지적 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에 대한 막연한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인지적으로는 여가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여가교육의 필요성 인식의 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 여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지적 내용의 비중이 높아야 할 것이며 기존의 여가교육 프로그램들이 강조해온 실제 종목이나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구성과는 방향성을 다르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은 경제적 제약과 타인 의식 제약이 비교적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다수의 학생들이 자취 혹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4학년의 경우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하던 아르바이트 활동을 멈추고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참여하는데 경제적인 제약과 타인의식제약이 높게 난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면접의 결과에서도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학기 중 많은 과제와 임용고시라는 부담이 있어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개인적 제약과 시설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사라는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방학이라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로 여행을 계획하거나 여가활동을 선택하는데 적극적인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 제약의 경우에도 학생 수에 비해 충분한 체육시설과 다양한 전공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어 여러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은 여가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강도조절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용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후반부터 임용고사를 준비하며 공부 시간 이외에 모든 활동을 줄여나간다. 이는 여가활동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기술습득 전략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4학년 학생들이 새로운 활동이나 기술을 향상시킬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여가 활동 영역이 공교육에 포함되었으나 초, 중, 고등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못했으며, 예비교사 교육 단계에서도 여가교육의 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여가활동영역이 건강영역의 중영역 중 하나로 축소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안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과 앞서 제시한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교과 내의 여가교육 축소는 여가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황선환 등, 2017). 2016년부터 의무화되어 있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공교육에서 여가교육의 가치는 아직도 잠재되어있다.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예비교사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교육이 시작되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예비교사교육은 그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예비교사로서 여가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더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여가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현장 중심의 초등 예비교사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경진(2007). 주 5일제 시행에 대한 초등교사 인식과 체육적 여가교육의 실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3(2), 1-14.
- 김경식, 황선환, 원도연(2008). 여가제약 협상 전략 척도의 개발과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47(3), 365-376.
- 김미향(2006). 현대여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여가교육의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45(3), 401-409.
- 김지영, 이철원, 조방현(2006). '알찬 토요일 보내

- 기를 위한 주말 여가교육 패러다임 탐구. **한국체육학회지**, 45(3), 425-433.
- 남량균, 임수원(2005).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 여가의식 조사 분석. **중등교육연구**, 53(1), 395-414.
- 박효진(2012). **공교육에서 체육교과 내 여가교육 적용을 위한 중학생의 여가의식, 여가제약, 여가사회화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영계(1993). 중고교 학생들의 학습기술 훈련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1(3), 21-36.
- 송재호, 김재운(2013). 초등교과서 여가활동 단원에 대한 교사 인식 및 만족도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4), 98-109.
- 신규리, 박수정, 김용석(2009). 체육교사의 여가교육 인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4), 233-243.
- 신규리, 박수정, 김용석(2010). 체육교사의 여가교육 인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4), 233-243
- 원형중, 이승민, 박수정(2007). 여가중심사회를 위한 여가교육. **한국체육학회지**, 46(1), 617-626.
- 유정애(2009). 신지식 기반사회를 대비한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재해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6(1), 1-18.
- 이문진, 김미량, 김동진(2006). 스포츠형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태도척도(LAS) 요인구조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5(2), 77-86.
- 이문진, 황선환(2012). 스키 참가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6(3), 72-82.
- 이상호, 김동기, 2010).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 여가활동만족에 관한연구. **청소년행동연구**, 15, 149-172.
- 이은실(2012). **초등학교 여가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한범(2011). 여가교육의 지향. **국민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논문집**, 29, 5-21.
- 지현진(2010). 교과과정 내 여가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여가학연구**, 7(3), 97-110.
- 하지연(2006). 여가사회화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5(1), 161-17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7차 체육과 개정교육과정 해설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만석, 김매이(2013). 여가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4, 661-673.
- 한만석, 김준성, 양도엽(2014). 여가교육 실태에 관한 체육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1), 641-650.
- 황선환, 김매이, 박수정(2017).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여가교육정책 제언. **여가학연구**, 15(3), 43-53.
- Hubbard, J., & Mannell, R. C. (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23, 145-163.
- Iso-Ahola, S. E.(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Leisure and Aging. Dubuque, IA: WM. C. Brown Publisher.
- Ragheb & Beard(1982). Measuring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2), 155-167.
- Sacker, A., & Cable, N.(2005). Do adolescent leisure-time physical activities foster health and wellbeing in adulthood? Evidence from two British birth cohort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6(3), 331-335.
- Scott, D., & Willits, F.(1998). Adolescent and adult leisure patterns: A reassess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3), 319-330.